

광주 정치, 견리망의(見利忘義)를 견리사의(見利思義)로

의정대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견리망의(見利忘義)’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교수 신문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다. 처음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는 “우리 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추천 이유를 말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다. 정의의 고장, 의향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주 정치도 피할 수 없었다. 비교적 근래에 발생해서 기억이 생생한 대표적인 광주의 견리망의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한다.

9월 사건이다. 민선 8기 초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처음부터 임기를 채울 생각도 없이 월급쟁이 공공기관장으로 일하다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사퇴하고 바로 다음 날, 느닷없이 삭발하더니 윤석열 폭정 저지를 외치며, 돌연 이재명 대표의 동조 단식을 지지하였다.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인사 청문회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헌신 찢처럼 버렸다. 사심의 극치였다.

10월 사건이다. 시 교육감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면접 순위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 되었다.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으로 광주 교육은 불신을 자초하게 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광주 교육이 단 한 명의 친구 때문에 전국적 망신을 당한 순간이었다.

역시 10월 사건이다.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북구 의원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명을 권고했지만, 동료 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얼굴 마주친 사이에서 나오는 정(情) 앞에서 북구의원들은 한없이 작아졌다. 북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는 무색해졌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평가되었다.

11월 사건이다. 광주에서 열린 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발언한 당사자는 사과 요구에도 침묵하며 버텼고, 그 옆에서 같이 웃고 있던 사람들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도 피해 다니기 급급했다. 어떤 이들은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며, 오히려 해당 발언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비호 아래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고자 애쓰는 출세욕, 도대체 개돼지 발언과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 정치에 세련된 비판은 실종됐다.

당장 12월이다. 내년 4월 총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친명 비명 논란이 한창이

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정작 총선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한 줄 경력을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이재명 알바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더 가관인 것은 친명 안에서 다시 친명과 친명을 나누는 모습이다. 정작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자신의 비전은 무엇인지, 밝힌 적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다. 이렇게 되면 지난 지방선거 광주의 최저 투표율 37.7% 부끄러운 신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

도대체! 광주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 됐다. 광주 시민이 광주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기득권 몰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개혁성을 갖고, 기득권 타파에 힘쓰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능한 ‘작은 DJ’의 등장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웅기 있게 냈던 ‘청년 노무현’의 등장이다. 따뜻한 웃음으로 늘 유쾌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고, 유연하지만 소신은 반드시 지키는 ‘포스트 문재인’의 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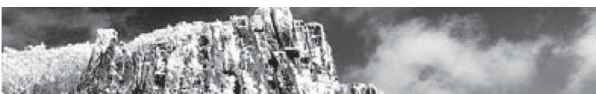
광주의 정치인들이여, 우리 함께 ‘견리망의’가 아닌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되새기자. ‘견리사의’의 본뜻처럼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자.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갖고 살자. ‘견리망의’하면 지금 당장 좋을지 모르나 결국은 다 망한다. 2024년을 ‘견리사의’의 해로 만들자.



사진으로 보는 세상

27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의 산크리스토폴 안덕 위에서 무속인들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2024년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점치는 연례 의식을 치르고 있다. 리마AP/뉴시스

서석대



‘나 혼자만 바뀌어도 세상은 그만큼 바뀐다’. 지난 2012년 강인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가 ‘망가뜨린 것, 모른 척 한 것, 바뀌어야 할 것’이란 책을 펴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책. 사회 변화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이나 총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개개인이 수백 번씩 반복하는 ‘일상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만든다’고도 했다.

과연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망가졌을까. 놀라운 것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서 망가진 부분이 똑같다는 것이다. ‘따뜻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서민을 위장한 정치인, 약자에 대한 비난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군중, 지방대라는 차별적 언어로 낙인을 찍는 학벌주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과 정확히 일치한다. ‘손님은 왕’이라며 감정노동자에게 과도한 친절을 강요하는 뺨뺨함이나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정부와 권력자의 모습도 여전히 유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인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 당신이 희망’

이라고 했다. ‘한두 사람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은 가장 큰 거짓말이다. 잘 속고 쉽게 잊는 국민이 무책임한 정부를 만들고 한국 사회를 몰락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반대로 타인의 아픔이나 불편함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망가진 한국 사회를 고쳐나갈 수 있는 열쇠도 공감, 배려, 연대를 꼽았다.

옛그제 시작한 것 같던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말 그대로 지난 한 해는 다 사다난했다. 집권당의 무능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불러왔고,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비리들도 국민을 분노에 빠뜨렸다. 이를 막아야 할 야당의 부재와 무너진 도덕성도 어처구니없다. 14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14년 뒤에도 똑같은 수밖에 없는 것일까. 망가진 우리 사회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숙명일까. 매년 이맘때면 빠지지 않았던 후회와 반성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한의 2023년을 보내면서 거짓에 속고 쉽게 잊었던 부끄러운 과거,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공감마저 잃었던 지난 날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아듀 2023!’.

이용환 논설실장

社說

건설업 덮친 PF리스크 허투루 봐선 안돼

선별 지원·구조조정 유도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업계는 부동산 호황기 아파트 수주를 늘리며 발행한 PF 보증서가 시장 침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PF발 위기가 내년에는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부동산PF 부실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3분기 말 134조 3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은 2.42%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금융권은 사업 초기 단계의 브리지론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향후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체 PF 대출에서 브리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말 기준 저축은행(58%), 캐피탈(39%), 증권(33%)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당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은 12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은도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년 건설업 부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내년 이후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육석을 가려 한계상황에 이른 건설사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 PF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융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시립요양원 폐쇄’ 공공의료 정책 바꿀때

광주시 무책임 행정 안돼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10년 만에 폐업하기로 했다. 제1요양병원 역시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새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면 제1요양병원도 내년에 문을 닫을 처지다.

광주시는 제2요양병원의 위탁 계약 종료일인 오는 31일 모든 외래·입원 진료를 종료하고 폐업할 예정이다. 제1·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중인 전남대병원과 빛고을의료재단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최근 5년간 시립정신병원과 제1·2요양병원의 누적적자는 총 96억8900만원이다. 전남대병원은 2013년 7월부터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했으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적자만 28억원이다. 시립정신병원과제1요양병원측은 2023년에만 24억 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TF팀을 꾸렸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

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제1요양병원의 공익적 비용 보전으로 13억 8000만 원, 제2요양병원은 운영손실금 10억 원을 반영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폐업이 결정되면 제2요양병원 부지는 더 이상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광주시의 고민이 깊다.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시립의료원 설립까지 걸들면서 공공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광주시의 공공의료 정책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시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민간병원 수준의 수익구조와 위탁 운영만 고집하고 있다. 시는 만성적자와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자 마치 기다린 듯 폐쇄를 결정했다. 누가 봐도 행정 편의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1970억 원을 들여 추진중인 광주시립의료원도 수익구조만 따진다면 제 2의 시립요양병원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약자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망이다. 공공의료기관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